

구성원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박성제



안형준



허태정

향후 3년간 MBC를 이끌 차기 사장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MBC를 둘러싼 거센 외부의 압박 속에서 차기 사장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특히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 MBC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차기 사장의 비전과 철학을 MBC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내 8개 직능단체(총 1,234명 소속)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는 MBC 구성원들이 사장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취합했고, 이를 10개로 추려 지난 10일 3명의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MBC 구성원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후보자 3명 중 박성제 후보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안형준, 허태정 후보는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정책발표회 전에 각자의 정책이 공개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며 응답 마감일이었던 16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구성원들의 공개질의를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된 현재의 사장 선임 절차를 보완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응답한 후보가 1명뿐이라는 이유로 그 답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성제 후보의 답변은 일체의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합니다.

※ 참여단체: 경영인협회, 기자회, 디자인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기자회, 촬영인협회, 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

Q MBC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상승했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양극화된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십니까? 또 이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박성제

일단 '뉴스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뉴스란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절반씩 보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판결'이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 말이 옳은지 시비를 정확히 가려주고 진실에 기반한 보도로 사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공정한 뉴스 아닐까요?

저는 사장으로서 우리 MBC의 언론인들이 그러한 철학과 신념으로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MBC 뉴스의 신뢰도, 영향력이 많이 높아진 것도 시청자들이 이같은 노력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진영이나 이념 차이에 따른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보도가 팩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기준이 편파적이지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청자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 시청자위원회 외에 <메타버스 시청자위원회>를 만들어 백명 이상의 시민 시청자위원들이 보도, 시사프로그램의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시청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보도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MBC 저널리즘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반영한 <MBC 신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공개하겠습니다.



안형준



허태정

Q MBC에 대한 외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MBC 사장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MBC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MBC 사장 선임 구조와 관련해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제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해치려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는 방송독립을 위해 싸우다 해직됐던 경험이 있으며 <권력과 언론>이라는 책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단 한번도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간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노동조합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풍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BC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과 시청자만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어떤 압력이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MBC의 언론인들이 이같은 자세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선임 구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는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준



허태정

Q 공영방송 MBC의 위상에 대한 다양한 외부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공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제도적 규제는 공영방송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과 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확립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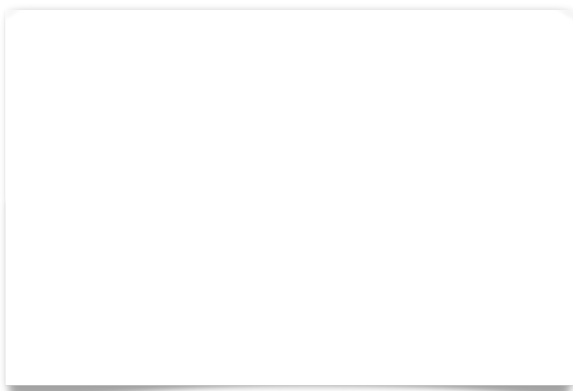
박성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다른 민영방송보다 더 심한 제도적 규제에 발목을 잡혀있는 것이 MBC의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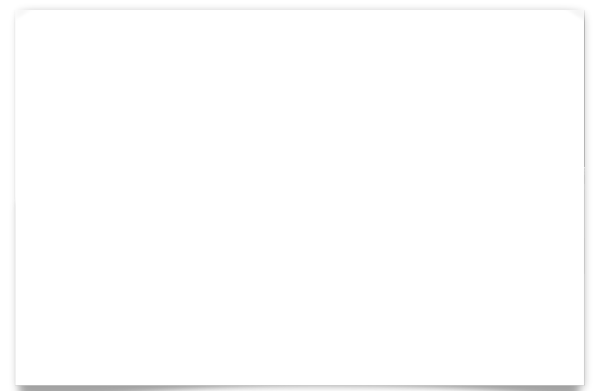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수신료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MBC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사장 선임 구조가 확립된다면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안형준



허태정



Q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타 채널, OTT 등 경쟁 매체들과 비교해 본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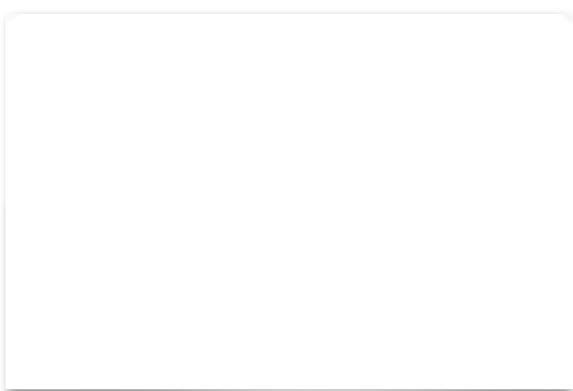
박성제

MBC의 콘텐츠 경쟁력은 창의성 높은 우수한 인재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저는 어떠한 매체와 비교하더라도 MBC 콘텐츠 제작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장담합니다. 특히 '창의성과 재미'라는 요소는 공영방송의 가치와도 직결됩니다. 2021년 활동했던 <MBC 공공성 강화위원회>도 '독특하고 뛰어난 콘텐츠로 한국/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핵심 목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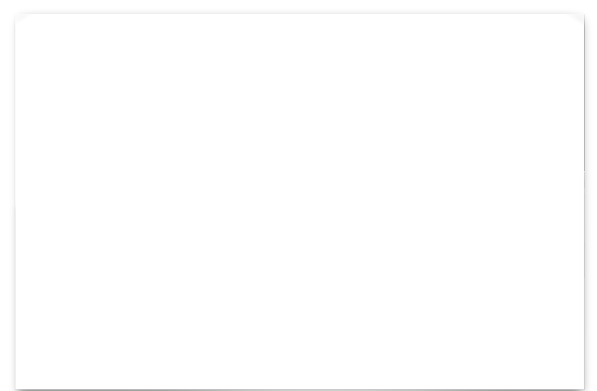
따라서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잘 만들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 전략입니다. 공영방송 콘텐츠가 꼭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형준



허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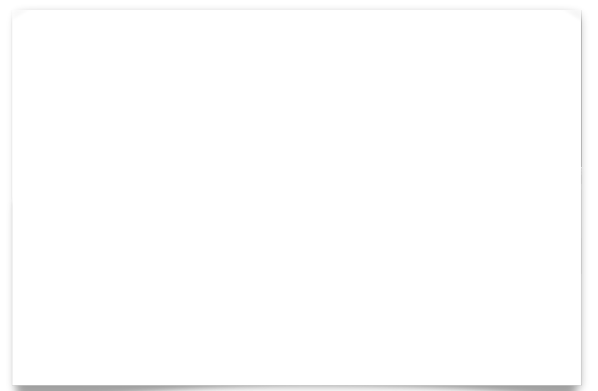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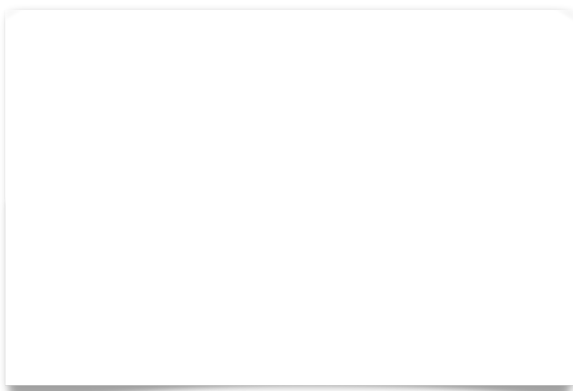
Q 현재 MBC 내 일부 부문에서는 필수 인력은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외주 제작 비중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재 확보는 커녕 인력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세대, 부문, 직종 등에서 경직된 조직 문화가 나타나면서 MBC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MBC의 조직 문화 개선 및 적재적소 능력에 따른 인사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MBC의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 재임 기간 최대한 많은 신입/경력 사원을 선발해서 조직에 젊은 피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역대 사장들의 채용 기록과 비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외주 제작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빠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기존의 제작 방식에서 버려야 할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효율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의 인력 활용이 절실합니다.

또한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는 것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경영진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많이 논의했지만, 저는 임금 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제도는 장기과제로 넘기고, 각 부문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적절한 인센티브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예능과 드라마 위주로 시행되고 있지만 추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해 인력 유출을 막고 오히려 핵심 인재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분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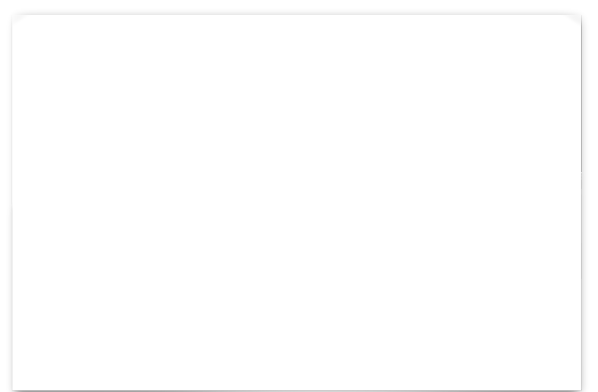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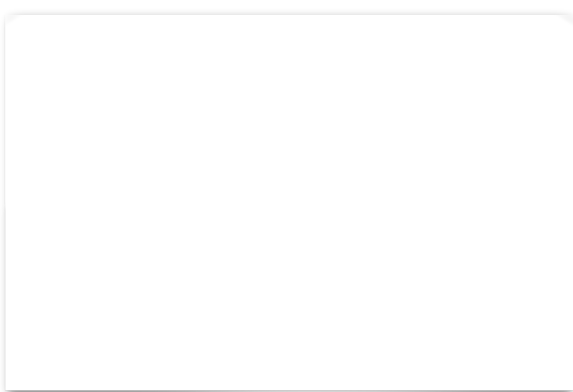


Q 후보자께서는 내부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외부적으로는 장애인, 노인, 빈곤층,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임을 어떻게 구현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여성 보직 간부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CEO와 워킹맘 간담회 등은 사장 취임 즉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BBC의 '50:50 프로젝트'를 참고해 주요 프로그램 패널의 성별 균형도 맞추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공영미디어국을 본부로 격상할 계획인데 여기에 ESG 경영을 실천하는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이 조직에서 성평등과 콘텐츠의 다양성, 포용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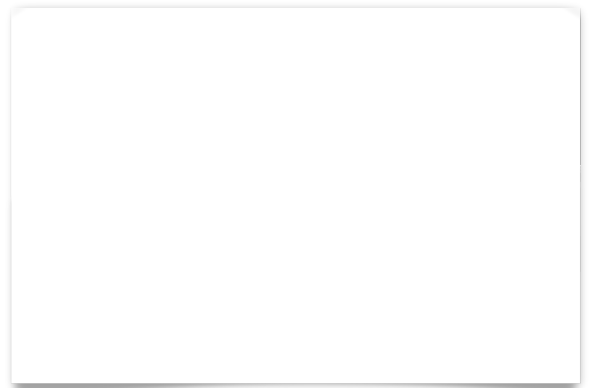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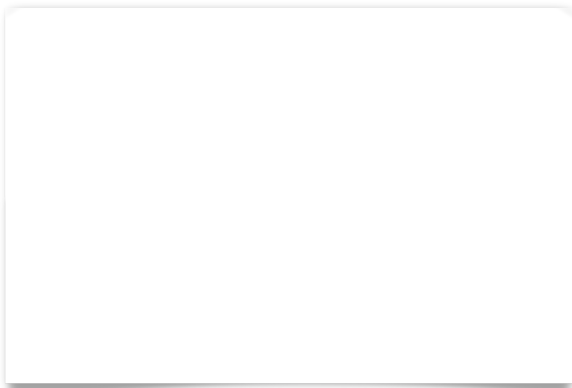


Q 2023년 광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황 악화가 예상됩니다.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향후 MBC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MBC를 둘러싼 비대칭 규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차기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노력하시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협회장으로 2년간 일하면서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중간광고 시행 등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광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IPTV 3사와 협업해 '어드레서블 TV'를 방송사 중 가장 먼저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뉴미디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광고 규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MBC CEO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저는 광고학회 등 수많은 토론회 및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해 MBC와 지상파의 입장을 대변했고, 교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규제 해결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해 왔습니다. 목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사장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사장이 필요합니다.



Q 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드라마본부의 스튜디오화와 스포츠 중계업무 자회사 이관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드라마의 가시적인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스포츠 중계 역시 인건비·임차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주관방송사업(HB)과 수익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를 극복할 묘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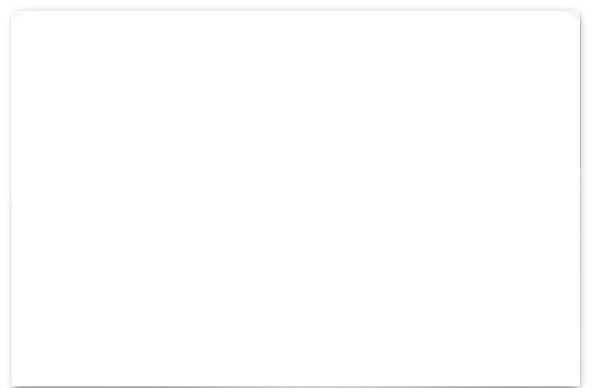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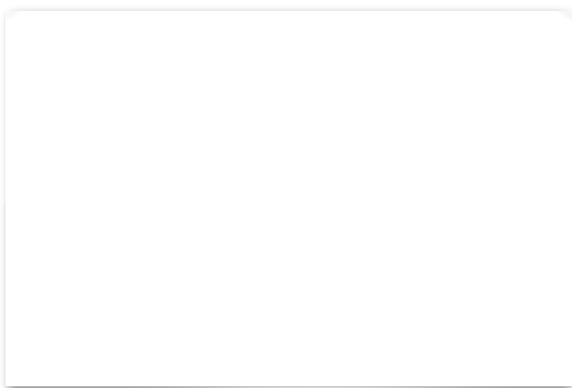


드라마 경쟁력 회복이 더딘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라마 조직개편을 통해 적어도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드라마 제작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는 편당 2,3백억에 이르는 제작비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상장사인 iMBC를 활용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SPC를 세우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 규모의 경쟁력 있는 드라마 제작사를 올해 안에 직접 인수하는 전략도 세워 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25년에는 독립적인 MBC 드라마 스튜디오를 출범시키고 드라마왕국 재건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월드컵 방송 압도적 1위의 성적표가 증명하듯, MBC 스포츠 중계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턱없이 상승한 중계권 비용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영진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MLB 중계의 경우 여러 가능성을 예상해 무리해서 중계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경영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올림픽/월드컵/WBC 등 전 국민이 시청하는 주요 이벤트는 방송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중계권 이슈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코리아폴을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MBC는 본사뿐만 아니라 16개의 계열사와 6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는 MBC 그룹의 중요한 정체성이자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요소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리면서 수익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들을 발전시켜 나갈 복안이 있으십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성제

저는 역대 사장들 중에 지역 MBC와의 상생에 가장 관심이 높은 사장이라고 자부합니다. 지역 MBC의 어려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억 흑자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나 '전파료 배분 조정' 등의 미봉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21년 MEGA MBC를 거쳐 ONE-MBC로 본사와 하나가 되는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6개 지역 MBC를 모두 방문해 전사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었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제주, 강원권과 충청권 계열사들은 전사원 투표를 통해 저의 비전에 찬성했습니다.

원주MBC의 지분 정리가 끝나는 즉시 강원권 3사의 메가MBC 통합을 바로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방송의 본령인 보도기능은 기존 권역을 유지하되, 콘텐츠 분야는 확대된 시청자권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제주MBC 역시 지분 정리가 되면 바로 본사와 통합하겠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MBC세종 사옥을 위한 부지 검토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회 이전 시기에 맞춰 중부권 560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MBC 세종 건설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연임하는 즉시 본사와 지역사 사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본사와 지역사의 윈윈 전략을 도출하겠습니다. 투명한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한 계열사 사장은 연임시켜 경영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안형준



허태정

Q 2017년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하고 5년이 지난 현재, 직접 수신율이 매우 저조하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ATSC 3.0 UHD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매체 위상 및 수익 제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MBC를 비롯한 국내 방송사 특히 지역 네트워크의 경우 UHD의 무편성 비율 준수를 위한 막대한 시설 투자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UHD 방송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 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UHD 전환을 과거 HD 도입 때처럼 지상파 방송사가 온전히 감당하며 진행하기엔 무리입니다. 방통위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초 추진 일정을 순연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UHD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TSC 3.0 UHD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현재의 시청패턴과 니즈에 맞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HD 표준의 우수한 이동 수신 성능과 5G 호환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과 차량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이동 수신할 수 있는 시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료의 보편적인 이동수신 서비스는 공영방송 MBC가 재난방송 매체로 역할을 다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프라본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MBC RTK(고정밀위치정보) 서비스를 UHD 방송망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미 방송사업자인 Sinclair 그룹, CASTERA와 북미 시장 사업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UHD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방발기금 활용이나 가전사 투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방송협회 차원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준



허태정